

---

---

17/07/09(주) 주일예배 / 제목 :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출 23:14~17) p. 118

---

---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한국교회 전체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일년에 단 한번 지키는 날인데다가 유대인의 문화도 모르고 농사도 짓지 않고 사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져서 잘 모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잘 모르면 레위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추절(麥秋節)을 이해하려고 구약성경을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모르는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한국사람인 주부에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말해줘도 쉽게 이해를 하지만 외국인에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절기에 관련된 성경을 읽어도 정리가 잘 안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맥추절이 무슨 날이고 어떤 유래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의 시기와 우리가 지키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보리가 익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맥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다른 것**입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출애굽한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달(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니다. 또한 유월절부터 7일간 그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전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 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밭에 밀과 보리를 같이 심어 놓으면 항상 보리가 2~3주 빨리 익기 때문에 초실절 제사는 언제나 보리 가루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실절이 종교적인 이름이라면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인 셈이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초실절(맥추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맥추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날부터 시작하여 49일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 있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각자 개인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란 이 모든 수확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고백하며 동서남북 상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맥추절)부터 7주간 즉 49일간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끝난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간상의 순서에 따라서 절기 이름들이 다르게 불리지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초실절인 이 날은 농사적으로는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날에는 한 해의 절반을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해마다 세 번은 절기로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란 유월절을 말하는데 그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유대인에 한하여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출 12:47-48)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지니라 /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양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으로서 그 이후론 이 유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전 5:7) “...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을 말하는데 맥추감사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말하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을 말합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의 계절을 맞아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곳간에 넣었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모든 성인 남성들은 옛날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당시처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생활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찬식과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었던 명령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 는 것입니다. 레위기 23 장 14절을 보십시오. (레 23: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 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도 아닌데 굳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이 맥추절에 대해 말씀할 때, 이 규례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 16: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실증’ 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문회와 같습니다. 어떤 청문회 위원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면 “언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억상실증’ 에 걸려서입니다. 그래서 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고 말고 살라’ 고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것’ 이라는 단어와 ‘수고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첫 것이라도,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수고한 것 중에서 제일 첫 것을 드려야 합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유월절 예식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장자 재앙은 초태생에게 내린 벌입니다. 초태생이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초태생 장자 죽음에 대한 대속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로서 죽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현물을 받을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로 헤아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은 때이므로,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은 전멸하고 대경제 공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인 필스버리(Pillsbury) 씨는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동반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1년 중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나머지 반년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도 복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입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도록 흔들여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열납하시도록 축복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흔들여 요제를 삼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심지어는 우거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외국인이라도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족 모두가 다 나와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 대한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렇다면 이 언약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였기에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정신은 계승하여야 합니다.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일들은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달까지 전반기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연말까지 후반기도 돌봐주실 것을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규례를 만든 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영원한 규례인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기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합시다.

**요약정리** /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추절을 지켰습니다.